

# 광주 첨단에 전국 첫 'AI반도체 시험 검증 시스템' 구축

### 상용화 전 단계 윈스톱 테스트 체계...국산 시장 경쟁력 핵심 진행업체 다음달 20일까지 공모...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산 AI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할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환경 조성 사업' 예산 200억원(국비 140억원·시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 AI데이터센터 내에 구축되는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으며, 내년(2024년)까지 2년 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망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윈스톱 실증·검증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직전 단계

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은 물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윈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해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반도체 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NPU는 전 세계 대량 연산 AI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등이 활용중인 GPU(그래픽처리장치) 방식의 큰 단점인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로, 국내 다수의 업체에서도 일부 출시 또는 개발 중이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앞서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이 주관한 'AI반도체 실증 지원사업'(2021~2022년 연속 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외국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했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국산 NPU 서버 대상 시험·검증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용역'을 위한 사업자도 조만간 공모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국산 AI반도체 제품 시험·검증 체계를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반도체 시장의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AI반도체 시험검증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광주 AI데이터센터가 국산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 10월 개소 예정인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 내 AI데이터센터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센터 내에 전국 최초로 국산 AI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할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광주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단속

### 다음달 20일까지...주요 노선·고가도로 등 적발시 과태료

광주시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달간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과 함께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 노선과 임동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

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체 스스로 준법 운영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했으며, 차량 2312대를 단속에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0만원 부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디어마이광주'서 문화 정보 갈증 풀자

### 광주시 문화예술 통합 홍보 플랫폼...문화행사·일자리 등

광주시가 문화예술 통합 홍보 플랫폼인 '디어마이광주(친애하는 나의 광주)' 활성화에 나선다. '디어마이광주'는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2022년 2월 오픈한 전국 최초 커뮤니티형 문화예술 플랫폼이다.

시민과 예술인, 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직접 글을 올리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쌍방향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커뮤니티와 아티스토틀어, 문화일자리, 문화이슈, 문화행사, 아트콜라보 등 6개 주제로 분류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예술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일상 속 문화생활 모습과 예술인들의 작품 사진으로 매일 새롭게 채워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예술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티스토틀어', 전국 모든 문화 일자리를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해 검색할 수 있는 '문화일자리', 문화전문가의 칼럼·비평을 열람할 수 있는 '문화이슈' 등도 인기도 높다.

'문화행사'에서는 실시간으로 개최되는 공연, 전시, 축제, 교육 등 정보를 윈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트콜라보'에서는 예술인 간 창작활동 협업 제안, 작업공간이나 물품 공유 등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의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도울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기업,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할인 프로 모션을 기획하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23, 2023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규모 있는 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 등도 운영한다.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빠르고 정확한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내일 또 오고 싶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한전에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 저온창고 농산가공품 보관 등

전남도가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 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 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레지사의 구레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 예고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입장을 확인

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업체 등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국전력공사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 및 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률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농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축산 농가 '사료 자금' 무이자 지원

전남도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축산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2446억원에 대한 이자 24억원을 지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이자 용자대출을 실행한다.

이는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산지 가격 하락,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완료한 축산농가로 2786호다. 용자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1%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전남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합 사료 가격 안정기금 조성, 사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국 유일 사료구매 용자금 무이자 지원 24억원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